

제3호

발행일: 서기 2011년 3월 10일(목)
창간일: 서기 2010년 3월 1일
구독신청: (043) 218-2158
F A X: (043) 212-2158
H P: 016-482-3158

安東金氏 按廉使公派宗會報

발행인: 김태문
편집인: 김재성
발행처: 안동김씨안렴사공파종회
충북 청원군 오창읍 창리 2-3
인쇄인: 김성희

파종회 대의원 대회 개최



지난 2011년 2월 18일(금요일) 충북 청원군 오창읍 소재 새마을금고 회의실에서 안동김씨 안렴사공파 대의원 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는 파종의 사무국장(홍식)의 사회로 성원보고, 개회선언, 국민외래, 종회운영에 공적이 있는 종



인에 대한 표창패 수여, 회장인사를 겸한 내빈소개, 태종파종회 고문(수도권총회 회장)의 축사,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심의, 임원개신, 기타 토의 순으로 진행 되었다. 영만 파종회장은 인사소개를 마친후 인사말

에서 지금까지 6년간 파종회장을 맡아 파종회를 운영하면서 지내온 일을 회고하면서 많은 협조에 감사하며 더 많은 참여와 단결을 호소하였다. 태종고문은 축사에서 수많은 종인의 적극적인 참여로 타 문중에 모범이 되는 종회를 만들자고 하였다. 2010년 세입세출 결산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을 의결하였고, 임원선임에 들어가 파종회장에 태문 선임부회장을 선임

하였으며 부회장에 당연직인 소유공종회장(홍희)과 직담공종회장(재홍), 소유공계에서 태영(여주) 홍식(음지)종인을 직담공계에서 대연(충경), 철희(왕간)종인을 각각 부회장으로 선임하고 감사에 윤희(정천), 홍식(충경)을 선임, 사무국장은 재성(영지)를 선임하고 나서 선임회장의 선임사가 있었다(별첨) 이어 선임 집행부의 합동 인사와 포의시간을 가졌다. 이날 표창패를 받은 종인은 파종회 재정확보에 공이 큰 태영(서울)종인과 묘여 조경에 노력한 공이 큰 대연 파종회 수석부회장, 재홍부회장이 파종회장의 공로패를 받았다.

안렴사공파종회 총무재정

취임사



안렴사공파종회장 김태문

● 저는 임기 동안

첫째 묘여과 재실의 관리와 운영을 더욱 승화시켜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이며

둘째 종중 재정확보에 주력하고 셋째 순조정신과 종인 인화단결에 힘쓰고 문화유산 보존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출생하신 전임 영만회장님께서 이루어 놓은 업적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여러 임원님들과 종친들의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종회의 부강한 발전과 순조부락(純調富落) 정신 함양을 위해 최선을 다 합니다.

끝으로 모든 종친들의 각 가정에서 행운이 가득하기를 재상 기원 드리며 취임사에 가름 합니다.

2011년 2월 18일

안동김씨 안렴사공파 파종회장 김태문 올림

존경하는 종친 여러분 새해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를 안동김씨 안렴사공파 파종회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한편으로는 무거운 짐을 지어 부딪힌 재가 조상의 유언에 충직이나 내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비록 부족한 점은 많을 줄 사료되오나 종친 여러분께서 많은 조언과 협조를 해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 초상승태와 종회 발전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신임회장 약력

- 1945년 충북 청원군 오창읍출생
- 기미년 대동보 편찬위원 역임
- 안렴사공 파보 편찬위원 역임
- 고충지 번역 위원 역임
- 청주향교 정의

- 성균관 유도회 중앙위원
- 송천서원 도유사
- 표충사 위원
- 성균관 유도회 충청북도본부 부회장
- 안렴사공파종회 선임 부회장

안동김씨 대종회 총회 공고

- 일시: 2011년 3월 24일 11시
- 장소: 백범기념관 (효창원공원내)
- ※ 많은 종친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상호 연락바랍니다.

이임사



안렴사공파종회장 김영만

것 등은 의미있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묘역의 문화재지정을 위하여 종인들의 종분애 따라 파묘(破墓)를 하였으나 유물을 찾지 못하고 복히 탐색용으로 여기저기 탐색할때 할아버지를 건드리는것 같아 지금까지 죄인이 된 심정입니다.

종인여러분! 후임 태문회장은 젊어서부터 종사에 관여하고 전국방방과과 종인들의 파계와 분포상황 그리고 보학에 밝아 우리 종회를 잘 이끌어 나갈것이라고 믿고있습니다. 그러나 유능한 회장이라도 종인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혼자서는 종회를 이끌수가 없는 것 입니다. 우리 모두 선임 태문회장을 중심으로 화북단결하여 안동김씨 15개파에서 제일 선망받는 안렴사공파종회를 운영합시다. 종인 여러분! 저는 종회를 운영할 때 행정과 정치논리를 조화 있게 적용한다면 부나할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일을 할때 원리원칙을 고집하여 직선적으로 추진하는것이 행정논리이고 중간의 장애물이 있으면 피하거나 돌아가며 일하는것이 정치논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논리는 법적인 결합이 없으나 종인들간 분열을 초래할 수 있고 정치논리는 규정은 다소 위반되나 조직의 임명한 운영에 도움이 될것입니다.

존경하는 안동김씨안렴사공파종인 여러분! 신묘년 새해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을 기원하며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전파종회장 영만 올림

세월은 유수와 같이 한번 지나가면 다시 제자리에 올 수 없고 주야동(晝夜動)처럼 빠르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공직을 퇴임하고 종사에 몇번 참여한 것 뿐인데 미천한 이 사람이 2005년2월25일 안동김씨안렴사공파종회제15차총회에서 회장의 중책을 맡은지가 어저께 같은데 6년이란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종인 여러분의 협조와 지도관달로 대과없이 임기를 마치게 된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종회에 뚜렷한 공적을 남기지 못하고 떠난다고 생각하면 여러종인들에게 부끄럽기도 합니다. 저는 회장으로 재임기간 고려촌신안렴사공 할아버지께서 오늘날 우리를 이땅에 태어나게 하신것을 항상 고맙게 생각하며 선조님을 잘 모셔야 한다는 일념으로 종인간의 화북단결(和北團結)으로 종회를 이끌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돌아켜보면 봉제사와 위선사업을 하기어렵던 재정형편이 지금은 좀 나아졌고 영묘재주변의 조경수목을 정리하여 환경이 개선되었고 할아버지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전국을 방문하여 종인들과 친목을 돈독히하고 종회보를 창간한

안렴사공파 享祀 奉行



지난해 11월 10일(음10월5일) 충북 청원군 오창읍 모정리 묘역에서 후손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간공(諱 永熙), 영삼사공(諱 翼), 안렴사공(諱 士廉)의 享祀가 엄숙히 봉행되었다. 이날 향사는

경명한 날씨로 향사참여 종친들의 발걸음을 가볍게 하였고 정갈하게 차려진 제수로 향사에 참여한 종인들에게 감명을 주었다. 모정리 향사를 마친후 오후에는 체경묘원에 있는 소윤공, 지주사공 묘소에서도 향사를 올렸다. 이날 안렴사공파 수도권총회(회장 태용)에서는 버스를 대절하여 많은 종친들

이 향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였고 모정리 묘역입구에는 수도권총회에서 세운 안내판과 기존 안내표석을 정비하여(공사비 230만원) 묘소를 찾는 종친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겼으며 체경묘원

앞에는 이날 준공된 재실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어 참에 종친들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였다. 이날 향사 분장은 아래와 같다.

「안렴사공 파종회 총무 제공」

구분	초현관	아현관	중현관	집례	대축	알자
정간공	(翼)在光 서울	(書)在俊 성남	(按)周默 서울	(翼)在永 수원	(按)在鴻 청주	(按)泰文
영삼사공	(按)흥희 청주	(翼)善會 서울	(按)容世 서울	(按)聖會 서울	(按)성희 감사	(按)泰文
안렴사공	(按)職會 청주	(按)수희 서울	(提)永默 청주	(按)성희 감사	(按)聖會 서울	(按)泰文
소윤공	(按)흥희종회장	(按)容周 서울	(按)성희 덕평	(按)성희 감사	(按)聖會 서울	(按)泰文
지주사공	(按)泰龍 서울	(按)在鴻 청주	(提)永默 청주	(按)성희 감사	(按)聖會 서울	(按)泰文

「牌位 윤희, 재신, 음희, 태근」



헌성금 내역

- 50만원 : 수희(서울)
- 30만원 : 용세(서울)
- 20만원 : 수도권총회, 익원공파종회, 신탄진총회, 주북(서울),
- 10만원 : 대총회, 문영공종회, 재야공파종회, 소윤공종회, 좌랑공종회, 관교공종회, 신창공종회, (翼)善會파종회장, 容大(전 문영공종회장), 泰榮(전 파종회장), (按)영만(파종회장) 덕회(고양), 진회(고양), 태영(마천동), 윤희(묘하) 선회(청주), 태봉(인천변동)
- 5만원 : 청주총친회, (翼)재남(수원), 재광(문영공종회장), 재영(수원), (按)관목(고양), 흥식(사무국장), 태운(서울), 재성(증평),
- 3만원 : (按)경희(진천), 상연(서울), 태평(서울) 계 3,730,000원
- ※ 회보협찬 : (도)봉회 대총회 부회장 100,000원

체경묘원(棟慶墓苑)齋室竣工



지난해 11월 10일(음 10월 5일) 충북 청원군 오창읍 복현리 소재 체경묘원 경내에서 庚寅年歲一祀를 겸한 재실 준공행사가 있었다. 체경묘원은 안렴사공(諱 士廉)의 장남 안찰사공(諱 侃)내외분의 墓所, 3남 정랑공(諱 潁)내외분의 墓所, 5남 소윤공(諱 濬)내외분의 墓所와 소윤공의 아드님이신 지주사공(諱 遇)내외분의 墓所가 모셔져있는 묘원으로 1988년 확장 조성되었다. 묘원 조성 이전에는 안찰사공 묘소는 현 파와단지터에 정랑

공의 묘소는 실전하였고 소윤공 묘소는 복현 백락촌이나 실전으로 안렴사공 묘하에 영단을 띄우고 있었다. 안렴사공께서는 6남 1녀의 자손이 두셨으나 장남 안찰사공은 후손이 없고 오창파와단지에 모셔져 있던 묘소를 양성공종회에서 관리하다 묘원 조성시 이곳으로 이전하였고 차남(諱 仁庇)은 出家, 3남 정랑공은 후손이 없고 묘소는 오창 인근에 소재한 것으로 추정되나 찾을 길이 없어 묘원조성시에 설단한 것이다 4남

절도사공(諱 瀾)는 女孀만 있어 전의이씨에서 500여년간 외손봉사하고 있고 5남 소윤공의 묘소는 좌보상 복현 백락촌에 평장이나 실전하여 안렴사공묘하에 영단으로 띄워 오다가 이번에 이곳으로 이전하였으며 6남 좌랑공(諱 滄) 묘소는 인근 동면 수남리에서 지척이 발견되어 봉분을 만들어 띄우고 있다 영동문 황간을 회포리로 이안하였고 따님은 복현인 마취원에 출가하였다. 묘원은 관리가 잘되고 있으나 재실은 남아(전 재실 심람문에

1972년에 건축된 것으로 되어 있음) 관리인의 거주가 어려울 뿐 아니라 향사시에도 전혀 사용할 수 없어 종의에 의하여 이번에 새로건축 준공하게 된 것이다. 신축된 재실규모는 대지 200평, 재실 30평, 참고 10평상당으로 건축비용 9000여만원 상당이며 앞으로 관리인의 거주는 물론 향사시 약헌후의 경우 재실에서 향사를 올릴 수 있음은 물론 종중행사등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윤공종회 회장 흥희 제공」



내판종중 합동묘역 준공 및 세향봉행



▲묘역입구 표석

지난해 11월 7일(음 10월 2일) 충북 청원군 남이면 상밭리, 팔봉리 일대에서 안렴사공파와 진사공파(내판, 봉기종중) 묘역준공식과 庚寅甲戌學이 봉행되었다. 이날 준

공인 묘역 조성 경위는 아래와 같다. 山崇水麗한 忠北 靑原郡 南二面 上林里 산16-1에 모셔진 成均進士 김의(金 熾)公(1490~1538)은 高麗末 忠臣 不事二君 杜門 72歲의 한 학이신 安東金氏 按廉使公派派祖

이신 土庫公의 五代孫으로 中宗朝 때 靜庵 趙光祖 선생의 弟子였다. 己卯土庫(1519년)가 일어나자, 進士公께서는 鶴鳴山의 끝자락인 飛鳳巖巖形의 明隱처, 錦江의 麓에

도도히 흐르는 忠南 蔚珍郡 錦南面 鳳起巖(옛公州, 明灘)로 隱居하시어 五卅餘年間 後孫들이 平和롭게 살 수 있는 터전, 世居地를 이룩하였다.

祖上 代代로 살아온 世居地인 鳳起先塋이 2006년 國家大事業인 世宗廿建設로 國家에 收用되어 親屬戚屬은 여러 곳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先任任들을 모실 곳이 여의치 않게 되자 主素 爲先事에 앞장서서 率先垂範하는 16代孫인 泰龍會長은 先任任들께서 水眠하시 先塋을 다시 마련하기 위해 여러곳의 산을 踏査하여 刻善의 努力 공에 마침내 忠北 靑原郡 南二面 上林里 산 16-1 林野 6畓여량과 隣近 八家畓에 林野 9畓여량, 및 位士田畓을 마련하고, 安東金氏 進士公派 內院門中 愷 會長長, 鳳起門中 一成(홍복)會長長, 慶會

總務等 直系宗親들과 함께 至極精誠을 다하여 墓苑을 造成하여 18代祖 이하 數十基의 先任任들의 墓所를 肅穆하고 아울러 같은 先山에 모셔져 있던 主素의 宜路將軍(諱 德潤, 政祖)묘역 부근의 壬辰倭亂 當時의 殉國하신 無名勇士 墓所 二十餘基를 發掘하여 合同墓를 만들어 모시고 冥福을 빌어드린 것이다.

(진사공파 제공)



▲조성된 묘역 전경

희민사(希閔祠) 준공



2010년 11월 13일 진천군 진천읍 행정리에 서 희민사 준공식과 위패봉안식을 유영훈 진천군수, 아규항진천군 의회의장 등 각급 단체장과 진천유림을 비롯하여

안동김씨 종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하였다. 희민사에는 안렴사공(諱土庫)의 6대손 좌찬성공 金孝憲 선생과 7대손 정당공 金遷 선생의 위패를 봉안하였다.

이날 회의 진행은 좌찬성공공회 김재복 회장의 감사패 전달과 신유현 희민사추진위원장의 식사, 김영만 안동김씨대공회부회장의 환영사 그리고 진천군수, 진천군 의회의장의 축사가 있었다. 이어서 희민사

향건사 제막, 희민사 삼문과 본당의 현판제막식을 끝내고 위패봉안고유제를 지내고 피로연을 가졌다.

김효건 선생은 2006년 11월 14일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잣고개의 도단공원에 입진란 때 의병을 모집하여 다수의 왜적을 포살한 공로에 대한 전적비를 건립하여 보존하고 있다

(좌찬성공회 제공)

호성원종공신안동김공휘효건전적비문 (扈聖原從功臣安東金公諱孝騫戰蹟碑文)

3-4페이지 연결



▲도담공원의 전적비

조선왕조에서 호성원종공신공신에 책록되고 승정대부의정부좌찬성 의관직을 추증받은 안동김공휘효건은 자를 희민(希閔)이라 하였는데 증중 정유년(1537)에 태어났다고

추(號)가 일으킨 난리를 겪으면서도 가호를 넘어 국충을 이루어 후세에 귀감이 될 생애 77세를 누리시고 광해군 계축년(1613)에 진천 사미촌에 고이 잠드셨다. 공의 선계(先系)는 구원한 역사를 가지는 가문에서 시작되었으니 신라 금대 가운데서 신이하게 탄생한 알지로부터이므로 당초에는 계림의 왕족이었다. 나말경순왕휘부의 후손 숙승(叔承)을 거쳐 도원수 추충장난정원공신상탁군 개국공 추봉선충현 모정난정국공신백상삼한삼중대공시충렬공방경(都元帥推忠靖獻定遠功臣上洛君開國公進封宣忠協謀定勳靖國功臣號上三韓三重大匡忠烈公方慶)이 안동으로 본관을 삼은 중시조가 되며, 문명공순(文), 상락후 영후(永熙), 영삼사사 전(貞)을 거쳐 안렴사 사렴(士廉)에 이르러 청주 오근도산으로 은거하시고, 이조좌랑 식(澁)을 거쳐

면서 목천과 진천 일대의 방족(望族)으로 터전을 잡았다. 직장 자리(自麗), 진사현감 인(仁)을 거쳐 사직 형손(亨孫)은 조고가 되고 고(考)는 용양위부호군을 지내신 기(祈)요 비는 부호군을 지낸 영산 신공(辛公) 휘 인공(引宗)의 따님이시다. 공의 묘에는 평능군 신공경희(申公綱禧)가 지은 지명(誌銘)이 있었으니, 공의 성품이 봉인공원 하셨다고 하며, 가슴에서는 봉당홍의하셨다고 하였고, 부모의 상에 진후 6년의 여묘(麗墓)를 하였음은 봉은 자손들에게는 반드시 충효를 근본으로 삼도록 훈육하고 공부(講讀)를 잘 내고 법령을 잘 지키며 많은 직책을 잘 수행함을 초야에서 충성하는 큰 절목으로 삼았다. 공이 평생을 살면서 잘한 일로 세상에 기록되어 전해오는 이 세 가지가 있으니, 첫째로는 가슴과 상산지(尙山誌)에

기록된 일이다. 용사왜란으로 대가 서수(西討)하고 백관이 분찬(奔竄)하는 와중에 용재홍지(龍宰洪池)가 병명이 있는 곳인 내포쪽으로 적병을 피해 갔을 때에 공이 집권(執權, 政權)으로 오다가 어찌할 줄 모르고 하동대는 이민(逸民)을 모아 의여(義旅)를 일으켜 고을 사람들을 이끌고 산골짜기를 끊어 지키며 적군 여력을 포살하였고, 이로 밀미암 고을 사람들이 비로소 안심하게 되었으며 현감의 재임을 요청하기까지 소임을 다하였다. 추충장을 넘어 청주를 향하던 후 진천으로 향하던 도 이회략군(馬勇悅京軍)에 대항하여 싸웠던 곳이 태타에서 원동으로 남는 고갯길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피난하며 쌓은 성이 양천산(襄泉山, 養千山)에 있다고 전해온다. 향의하여 왜적을 사로잡은 공과 수량이 부재하였을 때 소임을 다한 노고로 왕은

호종하며 왕명을 전달하는 내관의 관직에 임명된 듯하여 훗날 의정부 좌찬성의 관직을 추증 받았다. 둘째로는 선조실록에 기록된 일이나 선조 임오년(1602) 6월에 왕명에 의하여 진지내관(進止內官)의 역할을 하면서 개성부근의 고려 예종의 유능(遺骸)을 수습한 공로로 예마 헌필을 하사 받았으나, 지금으로서는 문화유산의 보존에 힘쓴 일로 인함이 있다. 셋째로는 왜란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왕을 호종한 공로

로 선조 을사년(1605) 4월 당시 왕명을 전달하는 상전(尙傳)의 직책으로 호성원종공신상등에 올랐다. 국가가 위난을 당해 고을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 허둥대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극복하였고 권수에 맞는 성실함으로 많은 직분을 다하였으며 부모에 대한 효도와 자손에 대해 경범하면서 뜻 깊은 교훈을 준 공의 행적을 지워지지 않도록 각축(刻跡)하여 일을 기리고 반반게 힘은 오늘날을 사는 우리들의 작은 책무로 생각

각하여 삼가 미진(寸端)의 짧은 글을 짓는다. 높은 지위에 있어야만 충성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초야에서도 고을을 지키고 충성과 효도를 다할 수 있다는 위민의 마음이 이미 공의 생각속에 있었고 이를 실천했음은 실로 감탄할 만하다. 풍성으로 타고난 권원홍의(權源弘毅) 한 공의 공이 수백년을 지난 오늘날에 와서 더욱 빛을 내도록 한 일이 아니겠는가. 전존(傳存)된 자료의 영세함을 찾아 보완하는 일이 이어

지고, 진천 고을을 지키던 선현들의 의기를 받아 새기면 이 땅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충효왕전(忠孝王廟)의 인물이 배출되지 아니하겠는가.

2006년 월 일

충북대학교 교수 겸 재단법인 중앙문화재단 연구원, 문화재위원, 문학박사 차용길(車勇吉)이 삼가 짓고 호성원종공신김효건선생 전적비건립추진위원회 세우다

안렴사공파 수도권종회 회원 총결공 묘소 참배



지난해 10월 14일 안동김씨안렴사공파 수도권종회(회장 대룡 전국회의원) 회원 50명이 안동 총결공 묘소를 참배하고, 의성 사촌마을을 방문 하였으며 선조들의 유적을 탐방하였다. 이날 행사는 안렴사공파



수도권종회의 가을 나들이를 겸한 행사로 8시 정각에 잠실 운동장을 출발하여 11시 30분 음수재에 도착, 총결공 묘소 참배 후 음수재 내의 영정에 참배 하였다. 음수재에서 재실 관리인 (E)봉희씨 부부가 미련

한 점심식사를 한 후 오후 1시 사촌으로 출발, 오후 2시경 사촌마을에 도착하여 사촌자로 집시관에서 관장 유근하(문화해설사)씨의 설명을 들은 후 추산사를 참배하였다. 만취당, 종택, 전사선생 유자정, 가로수 등을 보면서 기념관장의 해설을 들었다. 사촌마을에서는 파종의 재정 도유사, 임희종친, 봉수 전 대종회 도유사, 장수 파종회 총무(대종회 이사)와 대구에 사는 광남 대종회 이사가 함께하였다. 안렴사공파 수도권종회 회원들은 사촌마을의 조상의 얼을 지켜나가는 종친들의 마음

에 감사하였다. 이날 차중에서는 대운 대종회 사부총장의 대종회의 어제와 오늘과 사촌마을에 대한 긴박한 설명이 있었고 각 장소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으며 서울로 올라올 때에는 성희 수석부회장(전 대종회 부회장)의 사회로 개인 장기지팡이 가져와 이번 행사의 즐거움을 더하였다. 응회 광명관광 대표와 선희 왕산자원 대표가 각각 십만 원, 용주 총무가 오만 원을 특별 친조하였다.

「안렴사공파 수도권종회 용주총무 제공」

자랑스러운 안렴사공 後裔

정정 2호 자랑스러운 안렴사공 후예반에 기재된 당진 군 의회 순리는 대안군의회 순리로 정정합니다.



성연(在) 종친 한국양묘협회중앙회장 취임

성연(成)종친이 2011년 2월 8일 한국양묘협회 중앙회장에 취임하였다. 김성연회장은 충북 진천이 고향이고 안동김씨 안렴사공파 양성공 김취(金取)의 16대손으

로 충북대학교 입학과를 졸업하고 선천(김사영)이 경영하던 양묘사업을 이어 받아 우당양묘 생산으로 치산녹화에 대를 이어 기여하였고 한국양묘협회 충북지부장을 맡아오다 2009년

부터 한국양묘협회중앙회장직 부를 대행하여오다 이날 한국양묘협회 제51차 정기총회에서 중앙회장으로 선출되어 취임한 것 이다 성연종친은 안동김씨 진천군종친회를 창립하신 선친

의 뜻을 받들어 순조정산이 무척하여 주위의 부러움을 살 뿐만 아니라 안렴사공묘역 조성 수 식재등 종회발전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안렴사공파종회 영예 회장 영단 제공」



보경(泰)종인 화학공학박사학위 취득

안동김씨안렴사공21대 손녀 보경(泰)종인이 지난해 화학공학박사학위를 취득해 칭찬이 자자하다. 보경종인은 진천군수를 역임한 경희종인의 3녀로 1981년출생 진천상산초등학교

와 청주여고를 졸업하고 미국 에리조나주립대학에서 화학공학 학을 전공하고 계속해 석사과정을 걸쳐 화학실험을 거치지 않는 계산화학의 연구논문으로 학위를 취득했다.

보경종인은 미국유학중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비와 생활비는 물론 동생의 학비까지 부담하는 등 생활력이 강한 성품을 갖고있다. 현재 충남아산시에 있는 삼성정밀소재주식

회사의 책임연구원과 기반기술 LAB분야에 근무하고 있으며 장래가 촉망되는 안동김문의 후손이다

「안렴사공파종회 영예 회장 영단 제공」



태희(容)종인 사법고시 합격

지난해 정부에서 시행한 제52회 사법고시에 안렴사공23대손 율홍양이 최종합격되었다.

태희양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고 좌담공 후손이며 조부는 태봉, 아버지는 경희대학교 부속병원

홍부의과 의학박사 凡禮의 2女이다.

「대전 전 안렴사공파종회 수석부회장 제공」

회보의 원고를 보내주시시오. 내용은 선조에 대한 것이면 더욱 좋고 일상생활과 관련된 어땀한 것이든 상관 없습니다 또한 협천하심분 연락 주시면 성심껏 도와 드리겠습니다.

편집위원 : 대연, 재홍, 재성, 성희, 주희, 홍식

회보 원고접수

보낼 곳 : 안렴사공파종회
충북 청원군 오창읍 성리 2-3
TEL : (043) 218-2158
FAX : (043) 212-2158

안렴사공파종회 각종성금 입금계좌 안내

안렴사공파종회에 각종성금 찬조금, 회보협찬금 납입 계좌를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 : 새마을금고 9002-1239-7308-0
예금주 : 김태문(안렴사공)